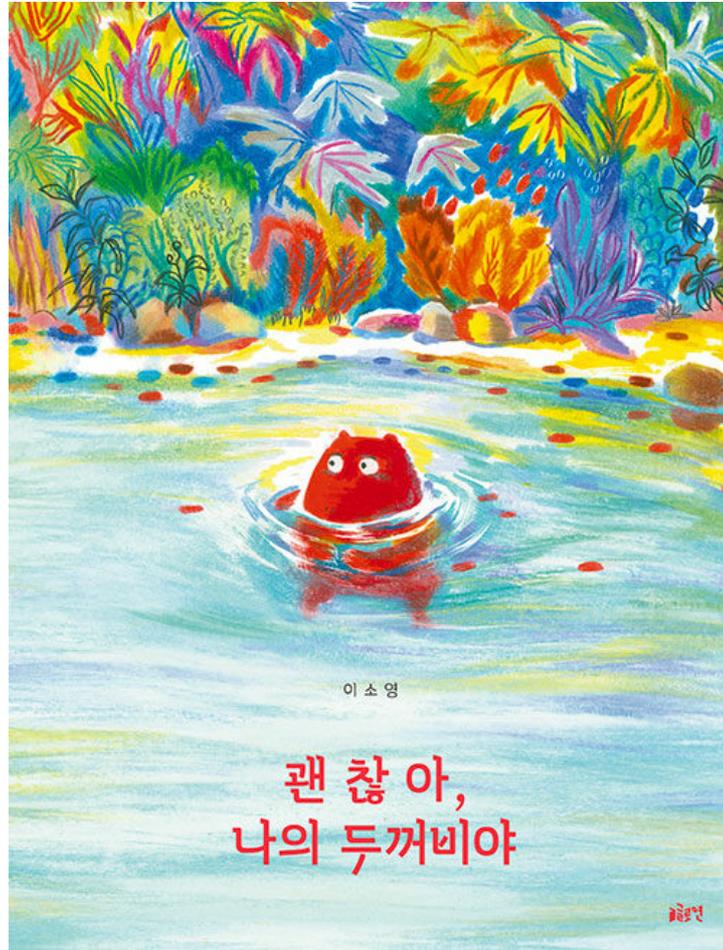


# 괜찮아, 나의 두꺼비아

이소영 글·그림



주제	내 마음을 바르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기
권장 차시	4 차시
대상 학년	5~6 학년
관련 주제어	감정표현(화, 질투, 죄책감), 소통, 공감, 존중, 이해
교육 과정 연계	국어 [6 국 01-07] 상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지닌다. [6 국 05-05]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.  도덕 [6 도 01-01] 감정과 욕구를 조절하지 못해 나타날 수 있는 결과를 도덕적으로 상상해 보고, 올바르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습관화한다.
작성	창원 하북초등학교 조소영 선생님

## ■ 도서 소개 (출판사 책 소개)

깊은 숲속 연못가에 오랜 친구인 흰 두꺼비 하양과 빨간 두꺼비 빨강이 함께 살고 있다. 하지만 이 둘은 아주 많이 달랐다. 명랑하고 사교적인 하양은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고, 빨강은 집에서 조용히 혼자 보내는 시간을 더 좋아했다. 하지만 빨강은 하양이 자신보다 다른 친구들과 더 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.

그러던 어느 날, 빨강은 하양이 동의도 없이 멀리 있는 친구를 둘이 함께 사는 집에 초대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났다. 사실 하양이 새 친구를 맞이하는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했기 때문에 시샘이 더해진 것이다. 날이 갈수록 감정이 악화되어 자신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던 빨강은 하양에게 “그래! 가 버려!” 라며 옆에 있던 돌을 던지고 말했다.

그 돌에 하양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자, 빨강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다. 관계의 경계선을 넘어가며 몰아붙이는 빨강의 독점적인 사랑과 그에 따른 죄책감을 재치 있게 보여주는 흔치 않은 그림책이다. 과연 빨강은 하양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?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?

## ■ 학습 목표

-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며 그림책을 읽을 수 있다.
- 나의 감정과 욕구를 적절하게 표현하며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.

## ■ 수업 준비

교실에는 다양한 아이들이 함께 존재한다. 모두가 다 다른 아이들이 함께 지내는 이 공간 안에서는 늘 크고 작은 일들이 생겨난다. 아이들이 생활하는 이 교실 속 세상은 어른들의 사회와 다를 바가 없다. 이 안에서 아이들은 자신을 표현하는 법과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법,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태도를 배워나간다. 아이들이 다양한 감정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. 또한 자신의 마음을 알아채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.

『괜찮아, 나의 두꺼비야』에서는 서로 다른 성향을 지닌 두 주인공이 등장한다. 친한 친구지만 외모도 성격도 다른 둘이 겪는 질투와 우정, 다툼과 화해의 과정을 살펴보면 아이들은 자기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.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던 다양한 감정을 살펴보고, 어떻게 나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여 상대와 소통할 것인지를 책속 이야기와 나의 삶을 연결하여 생각해 보는 활동으로 풀어나가는 수업을 계획하였다.

**수업 준비물** 그림책, 메모지, 도화지, 색연필, 사인펜

## ■ 학습 과정

주요 활동		차시
읽기 전	책과 만나기 - 마음 열기 - 표지 살펴보며 생각 나누기 - 책 내용 예상하기	1 차시
읽는 중	함께 책 읽기 - 책을 읽으며 내용 확인하기	1 차시
읽은 후	이야기에 담긴 다양한 감정 찾기 - 인상 깊은 장면 찾기 - 감정 이름표 만들기	2 차시
	이야기와 나의 삶 연결하기(선택 활동) - 질문 만들어 함께 이야기 나누기 - 내 마음을 담은 편지쓰기	

### 읽기 전

#### 1. 책과 만나기

##### ■ 마음 열기

- 책을 읽기 전에 친구들과 마음이 잘 통하는지 '이심전심 텔레파시'라는 놀이를 해봅시다.
- 두 명씩 짝을 지어 서로 등을 맞대고 앉습니다. 선생님의 신호에 맞추어 둘이 동시에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. 마주 보는 방향이 같으면 텔레파시가 통한 것입니다.
- 텔레파시에 성공하려면 친구의 마음을 잘 짐작하여야 합니다.

##### ■ 표지 살펴보며 생각 나누기

- 오늘 함께 읽을 책을 함께 살펴봅시다.
- 책 표지에서 어떤 정보를 찾을 수 있나요?

예: 제목, 작가, 출판사 등

- 이 책 제목은 『괜찮아, 나의 두꺼비야』입니다.  
2021년도에 프랑스에서 먼저 출판되었고, 2022년 3월에 우리나라에서 출판되었습니다.
- 책 표지를 손으로 만져보고 느낌을 이야기해 봅시다.  
예: 느낌이 부드러워요.  
실제 그림을 만지는 느낌이에요.
- 표지 그림을 살펴봅시다. 무엇이 보이나요?  
예: 연못 안에 빨간 두꺼비가 있어요.  
다른 동물들과 하얀 두꺼비가 있어요.
- 연못 안 빨간 두꺼비의 표정은 어떤가요?  
예: 걱정하는 표정 같은데요.  
불안해 보여요.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
- 표지를 살펴보았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색깔은 무엇인가요?  
예: 책 표지 중간에 빨간색 두꺼비가 있어서 빨간색이 제일 잘 보여요.  
제목이랑 출판사 이름도 빨간색이에요.
- 빨간색은 어떤 느낌을 주나요?  
예: 어떤 큰 문제가 생겼거나 중요한 것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.  
화가 났거나 흥분된 마음을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.
- 면지를 살펴봅시다. 면지는 책 표지와 책 본문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.  
책 내용의 분위기를 나타낼 때도 있고, 예쁘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.
- 이 책의 면지를 보니 어떤 느낌이 드나요?  
예: 주인공이 빨간색이라서 면지도 빨간색으로 한 것 같아요.  
연극 할 때 빨간 커튼이 열리는 것처럼 이야기 시작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.

#### ■ 책 내용 예상하기

- 표지에 나온 등장인물을 자세히 살펴보며 책의 내용을 예상해봅시다.  
예: 빨간 두꺼비가 다른 동물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있어서 따돌림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.  
빨간 두꺼비는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.  
친구들과 놀다가 싸워서 화가 난 두꺼비가 빨강게 변한 것 같아요.

## 읽는 중

### 1. 함께 책 읽기

#### ■ 책을 읽으며 내용 확인하기

- 하양과 빨강은 오랜 친구입니다. 하지만 둘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. 어떤 차이를 찾을 수 있나요?  
예: 하양과 빨강은 둘 다 두꺼비인데 색깔이 달라요.  
하양은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하는데, 빨강은 조용히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해요.  
하양은 새 친구 사귀는 것을 좋아하고, 빨강은 하양과만 친하게 지내려고 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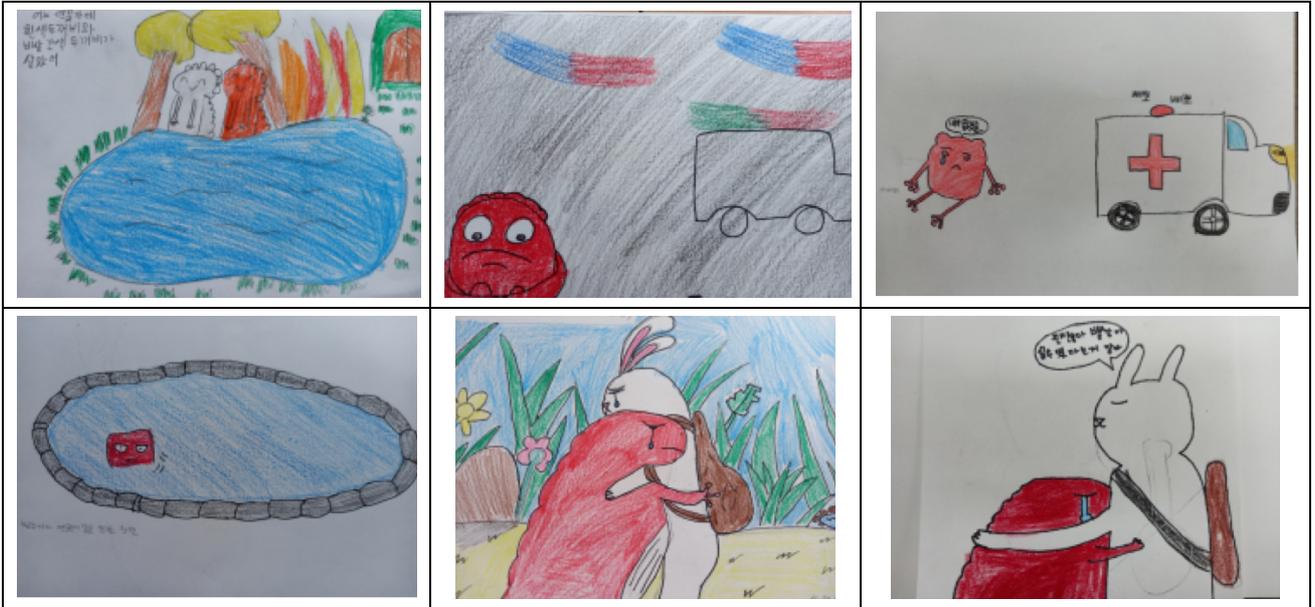
- 하양이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떠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려고 할 때, 빨강은 어떻게 하나요?  
예: 불편하고 귀찮다고 생각했어요.  
싫어도 거절하지 못하고 하양이 하고 싶어 하나까 어쩔 수 없이 같이하는 것 같아요.
- 여러분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하고 싶어 해서 같이 한 경험이 있나요?  
예: 나는 안 걷고 싶었는데 엄마가 산책하고 싶어 해서 같이 1 시간 정도 걸은 적이 있어요.  
별로 재미없는 게임이었는데 친구가 하고 싶어 해서 같이 보드게임을 한 적이 있어요.  
집에서 쉬고 있는데 친구들이 계속 같이 놀자고 전화가 와서 나간 적이 있어요.
- 빨강은 왜 하양이 하고 싶은 것을 같이 하는 걸까요?  
여러분들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와 친구가 원하는 것을 같이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  
예: 엄마가 행복해 하나까요. 엄마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아요.  
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는 게 중요해서요.  
거절하면 친구들이 다음에는 연락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. 계속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요.
- 하양이 다른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빨강은 어떤 생각을 했나요?  
예: 자기보다 다른 친구들과 더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서 질투하는 것 같아요.  
하양이 빨강하고만 친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
- 흰 토끼가 집에 놀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빨강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?  
예: 모르는 친구를 초대해서 당황했을 것 같아요.  
하양이 빨강과 의논을 하지 않아서 무시당한 기분이 들 것 같아요.
- 하양이 집을 빠져 나간다고 할 때 빨강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?  
예: 하양이 집을 나간다고 해서 놀랐을 것 같아요.  
싸우기는 해도 하양과 헤어지는 것은 싫을 것 같아요.  
붙잡고 싶는데 자존심이 상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아요.
- 빨강이 돌멩이를 집어 던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?  
예: 하양이 돌멩이에 맞아서 다쳤어요.
- 동물 친구들이 하양과 함께 병원에 갈 때 빨강은 왜 함께 가지 않았을까요?  
예: 너무 미안해서 못 간 것 같아요.  
다친 하양이 빨강을 보고 화를 낼까 걱정되어서 못 갈 것 같아요.
- 흰 토끼가 찾아왔을 때 빨강은 무슨 생각을 했나요?  
예: 하양이 흰 토끼에게 자기를 칭찬했다는 말을 듣고 놀랐어요.  
흰 토끼가 하양이 다친 사실을 알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했어요.
- 하양이 다친 사실을 알게 된 흰 토끼는 어떤 행동을 했나요?  
예: 빨강을 안아주었어요.  
“괜찮아, 빨강아. 실수였다는 거 알아”라고 말해 주었어요.
- 빨강과 하양은 어떻게 화해를 하게 되나요?  
예: 흰 토끼에게 위로 받은 빨강이 용기를 내어서 하양에게 편지를 써요.  
하양이 빨강의 편지를 받고,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요.  
빨강이 평소엔 하양이 좋아하던 파티를 열어서 친구들과 다 함께 놀아요.

# 읽은 후

## 1. 이야기에 담긴 다양한 감정 찾기

### ■ 인상 깊은 장면 찾기

- 『팬찮아, 나의 두꺼비야』 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을 찾아 그림으로 그려봅시다.



예: 하양과 빨강이 같이 연못가에 있는 모습이 예뻐 보여서 기억에 남아요.

하양이 병원에 실려가는 장면이 충격적이었어요.

하양을 다치게 한 빨강이 연못 속에 몸을 숨기는 게 이해가 되어서 기억에 남아요.

흰 토끼가 빨강을 안아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.

빨강이 흰 토끼의 위로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.

### ■ 감정 이름표 만들기

- 여러분이 인상 깊었다고 한 장면을 보며, 그 장면에 등장한 인물이 처한 상황을 살펴봅시다.
- 등장인물은 어떤 마음과 감정을 느낄까요? 등장인물의 감정을 찾아 감정 이름표를 만들어봅시다.



예: 하양이 다른 친구들과 더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지켜보는 빨강: 질투, 불만, 실망, 불편, 우울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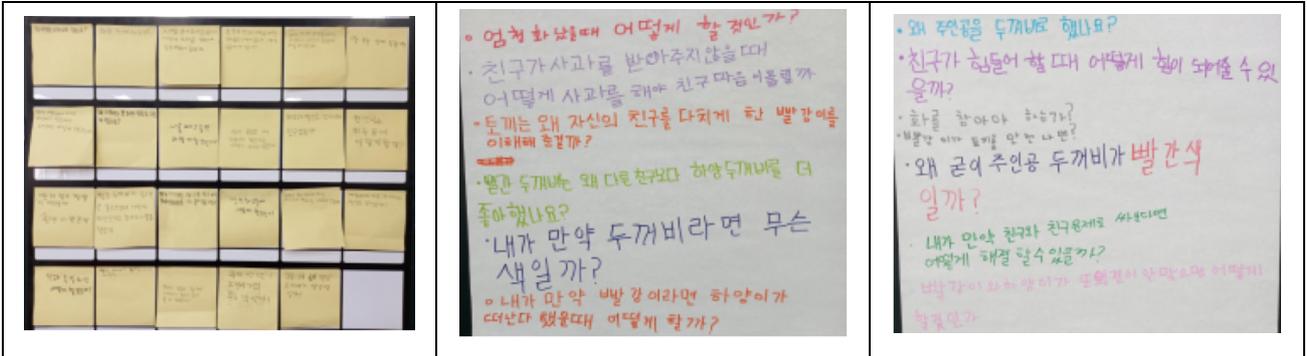
싸우다가 갑자기 떠나겠다는 하양을 바라보는 빨강: 당황, 막막함, 화, 괴로움 등

흰 토끼에게 위로받은 빨강: 안심, 감동, 편안함 등

## 2. 이야기와 나의 삶 연결하기

### ■ 질문 만들어 이야기 나누기

- 『괜찮아, 나의 두꺼비야』를 읽고 궁금한 것을 질문으로 만들어봅시다.  
책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도 되고, 친구들의 생각을 알고 싶은 질문을 만들어도 됩니다.



- 예: 작가는 왜 주인공을 두꺼비로 했을까?
- 주인공 두꺼비가 빨간색인 이유는 무엇일까?
- 나는 하양과 빨강 중 누구와 닮았을까?
- 내가 만약 두꺼비라면 무슨 색일까?
- 내가 만약 빨강이라면 하양이 떠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까?
- 흰 토끼는 왜 빨강을 이해해 준 것일까?
- 내가 만약 친구와 싸운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?
- 화는 참아야 하는가?
- 엄청 화가 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해결하는가?

- 나와 친구들이 만든 질문을 살펴보고,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 질문을 골라봅시다.

- 작가는 왜 주인공을 두꺼비로 했을까요?

예: 다른 책에 두꺼비는 주인공으로 잘 안 나오니까 색다르게 하려고 한 것 같아요.  
화를 내고 숨는 모습이 두꺼비랑 비슷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.

- 주인공 두꺼비가 빨간색인 이유는 무엇일까요?

예: 빨간색이 나타내는 느낌 때문인 것 같아요.

- 여러분은 빨간색이 어떤 느낌을 나타내는 것 같나요?

예: 분노, 화, 부끄러움, 질투, 사랑 등

- 여러분은 스스로가 하양과 빨강 중에서 누구와 닮았다고 생각하나요?

예: 저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해서 빨강인 것 같아요.  
저는 둘 다인데, 하양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.

- 여러분을 색으로 표현한다면 무슨 색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?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?

예: 저는 평소에 표정이 우울해서 파랑인 것 같아요.  
저는 연두색이에요. 왜냐하면 저는 순수해서요.

- 여러분이 만약 빨강이라면 하양이 떠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 같나요?

예: 하양이 나를 떠나는 게 싫어서 그냥 알았다고 하고 하자는 대로 할 것 같아요.  
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.

- 흰 토끼는 왜 하양을 다치게 한 빨강을 이해해 준 것일까요?

예: 빨강이 일부러 다치게 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.

자기도 비슷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.

- 여러분 또는 친구가 빨강처럼 힘들거나 화가 날 때,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?

예: ‘많이 힘들고 속상하지.’ 위로해 주면 좋겠어요.

“괜찮아, 그럴 수도 있지.” 공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

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좋겠어요.

### ■ 내 마음을 담은 편지쓰기

- 『괜찮아, 나의 두꺼비아』에 등장하는 인물에게 편지를 써봅시다.

인물의 행동이나 마음이 공감되는 부분,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담아서 씁니다.



- 『괜찮아, 나의 두꺼비아』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.

여러분들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하양이거나 빨강일 수도 있고, 흰 토끼일 수도 있습니다.

여러분이 이야기 속 인물처럼 친구에게 화가 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겠지요.

만약 그런 상황에 생긴다면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,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 해주면 좋을지를 생각하면서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